

2024년 9월 10일(화요일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보도자료



·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 이혁주 실장(042-363-7121)
·배포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 김성권 실장(042-363-7531)

2025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.4조원 편성, 금년 대비 2,733억원 증액

- 소상공인 종합대책(7.3)에 발맞춰, 배달료(2,037억원 신규) 지원,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(5→5.5조원), 희망리턴패키지(+937억원) 등 증액 편성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사장 박성호, 이하 공단)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)이 금년 대비 2,733억 원 늘어난 5.4조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 - * ('24) 5.1조원 → ('25) 정부안 5.4조원 (금융위 새출발기금 5천억원 포함시 5.9조원)
- 2025년 공단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 맞춰, 소상공인 배달료(2,037억원 신규) 지원, 정책자금(+600억),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('24년 5조원→'25년 5.5조원), 희망리턴패키지(+937억원)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.
-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,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,037억원 편성됐다.
 - 공단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·배달료를 지원 한다.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.

-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 (5조 5,000억원)로 발행할 계획이다.
 - 이에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(40종→28종),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,
 -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.

-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,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 7,7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.
 -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(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)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,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-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·재창업 등 '희망리턴패키지' 예산을 기존 1,513억 원에서 2,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.
 -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, 재취업,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.

- 박성호 이사장은 “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사진자료 : 없음, 붙임자료 : 없음>